

첫 아시아 청년들 국제행사 진행

도, 'KT&G 아시아청년 창업포럼' 개최... 창업아이템 포럼·그룹미션 진행 '관광홍보 효과' 기대

해외관광객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전북도가 첫 아시아 청년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를 진행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추진 중인 국제행사 중 첫 번째 행사인 'KT&G 아시아청년 창업포럼'이 지난 30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남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9개국 160여명 대학생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도 도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MICE 협회가 주관하며 KT&G가 협찬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 태국에서 한국마이스협회 김승수 회장을 만나 이번

행사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KT&G 아시아 청년포럼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창업아이템 국제행사로서 아시아 각국 학생들이 창업아이템을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청년 포럼은 창업아이템 포럼과 그룹미션(영상촬영 및 발표) 등 2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아시아 청년들은 30일 오후에 남원 공무원교육원에 모여 창업아이템 포럼이 개최됐으며,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 이 포럼을 위해 올 초, 아시아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2차 대상자를 선발한 바 있다.

31일에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이

원주 남원시장, 한국경제신문사, 한국마이스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개최됐다.

시상식에서 남원시립농악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도지사특별상 등 총 6개 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한편, 포럼을 마친 참가자들은 31일 오후부터 4월 2일까지 남원, 순창, 임실, 익산, 전주 지역의 주요관광지를 탐방하며 각각에 주어진 미션(공주팔췌, 춘향전, 흥부와 놀부, 서동요)을 수행했다.

주요관광지에서 영상홍보물을 촬영하고 미션 수행에 대한 발표회를 통해 전북의 관광자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참가자들이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탐방하고, 미션을 수행하며 제작한 영상물을 통해 홍보활동이 이뤄져 관광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관광마케팅 유치 방향을 '국제 청년관광도시, 전북'으로 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이번 행사 이외에도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 선유8경 페스티벌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

도, 1학기분 1일부터 접수

전북도는 1일부터 시군 홈페이지 및 분청 등에서 2017년 1학기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신청 접수 받는다.

이자지원 신청은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하며, 시군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경 대상자를 최종 결정해 지원한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조례제정을 완료해 7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도내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시군과 협력하고 대학과의 협조를 통해 많은 대상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역 대학생들을 우수인재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한국장학재단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문화관광포럼 발대식 개최

전북도는 31일 도청3층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함께 '전라북도 문화관광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문화관광포럼 출범 배경에 대한 경과보고,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포럼 운영회칙안에 대한 의견, 위촉장 수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문화관광포럼은 2007년 1월부터 도내 분야별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관련 단체 30여명으로 구성된 정례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문화포럼에, 관광, 콘텐츠 기능을 보강해 확대·개편한 것이다.

포럼은 명실공히 문화관광분야의 민·관·학·연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결집체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정책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문화관광포럼 발대식에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문화관광분야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발대식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증축 추진

3층 유휴공간에 창업보육공간 12~14개실 확장... 공사 내년 3월 완료 목표

신태인,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전북 산림당국은 점음시 신태인을 연정리 일원에서 고사 소나무 7그루를 정밀검사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산림청과 긴급방제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전문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발생경로를 파악 중에 있다.

또한 5일까지 감염나무 반경 2km 이내 산림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산업 분야 벤처기업 창업 및 보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있는 기존 탄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를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총 15억원을 투입해 기존 18개실 규모의 창업보육공간에서 30개실 이상으로 확장하는 증축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공간부족으로 입주를 못했던 탄소산업분야의 초기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애로해소와 만성적인 입주 적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 입주 희망 창업기업 21개사 중 5개 기업만 입주해 탄소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부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2층 규모인 창업보육센터의 3층 유휴공간에 12~14개실 정도의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추가로 증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소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공모사업인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 수요 증가가 예상돼 2018년 3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해 조기 입주를 목표로

로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중에 있다"며 "설계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확장 외 창업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창업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임도욱 탄소산업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탄소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이 빠른 시일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전주시, 탄소기술원과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착한 일자리 창출

도, 예비사회적기업 9개 지정·일자리창출사업 28개 기업 지원

전북도가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착한 일자리 6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31일 진흥 정무부지사 주재로 제1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9개를 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은 28개 기업에 201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심사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기여부, 사회적기업의 인증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우선 선정했으며, 일자리창출사업은 그동안의 사업 실적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인원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재능기부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및 회계, 노무,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사회적기업가의 자질 향상과 기업경영 마인드 제고로 지속성 있는 스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인증사회적기업 107개, 예비사회적기업 48개로 총 155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게 됐으며,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오는 7월에 공모 추진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기능경기대회, 5일 열려

전북기능경기대회가 오는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폴리메카닉스 등 39개 직종(한지공예, 부채 만들기 등 지역 특성과 직종 2개 직종 포함) 401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 동안 갖고 닦은 기술을 겨루게 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올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명장, 전국대회 심사위원 및 타 지역 기능인 등이 기술위원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경기력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청, 무인항공 측량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개발본격 추진되면서 사업 지역 내 지형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공간 정보 확보를 위한 무인항공(드론) 측량에 나선다.

우선, 지난해 7월 연결도로가 개통된 고군산군도의 신시~무너도 주변 지역을 촬영한 후, 성과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무인항공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새만금 지역의 공간 정보 확보를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